



# '수성' vs '탈환'... 제주 유권자 표심 촉각

## 제주 연고 국회의원 몇 명 나올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관전 포인트  
민주당, 3석 모두 이길 경우 6차례 연속 승리 기록 국민의힘, 1석 이상 얻으면 제주 정치사에 큰 변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는 민주당이 6차례 연속 승리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1석이라도 확보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 제주지역 3석 가운데 1석이라도 확보할 경우 20년간 지속되던 민주당 계열의 독주 체제에 금이 가게 되면서 제주 정치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3개 선거구를 석권하는 저력을 과시하며 5차례 연속 승리의 깃발을 잡은 것이다. 역대 총선을 보면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 후보 3

명 당선, 제16대 한나라당 1명과 새천년민주당 2명 당선, 제17대 열린우리당 3명 당선, 제18대 통합민주당 3명, 제19대 통합민주당 3명, 제20대 더불어민주당 3명, 제21대 더불어민주당 3명 등이 당선됐다. 제주 민심은 제17년부터 19대 4·11 총선까지 세 번 연속 강창일, 김우남, (故)김재운 후보를 선택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3선의 영예를 얻으며 여의도 재임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故)김재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출마하지 못했다. 3선 의원 중 강창일 의원만 유일하게 출마해 4

선에 성공했는데, 당시 민주당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초선으로 당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창일 의원이 후진 양성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초선,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선에 성공했다. 이어 오영훈 의원이 제8회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그의 반자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메웠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제주시를 선거구 김한규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위성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6차례 연속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제주시갑 선거구 고광철 후보, 제주시를 김승욱 후보, 서귀포시

고광철 후보 중 1명 혹은 2명 이상 당선될 경우 제주 정치사에 큰 획을 남기게 된다. 제주시갑 선거구인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발 등 법정 대응을 예고하는 등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에 두 후보간 네거티브 전략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제주시를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제주시를 선거구는 2004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5회 연속 내리 당선된 곳이다. 야권인 민주당이 6회 연속 석권할지, 여권인 국민의힘이 탈환할지,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이 선거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지 주요 관심사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2파전이다. 특히 두 후보는 고교 동문으로 동문들의 표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표심도 주목된다. 두 후보 모두 제2공항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고 후보는 적극 추진, 위 후보는 갈등 해소 등의 조건을 달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 경기 용인병 부승찬 출마 제주 사위 한준호·박용찬도 국회 입성하면 각 상임위서 제주 현안 절충 통로 활용 3석에 불과한 제주엔 절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인 10일 국회에서 제주 현안 절충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산인 제주출신·제주연고 후보자들의 당선 여부가 도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3석에 불과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제주 현안의 국회 절충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출신 및 제주연고 국회의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적이다. 제주연고 현역 의원들의 경우 재선과 3선 도전에 성공하면 각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간사나 소위 위원장, 상임위원장 도전도 가능하다. 한 명이라도 더 재입성할 때 제주도에는 제주 현안을 절충할 수 있는 길이 더 확보되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원희룡(국민의힘·인천 계양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 후보와 제주에 연고를 둔 한준호(민주당·경기고양시을), 박용찬(국민의힘·서울 영등포구을),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김정

호(민주당·경남 김해시을), 황보승희(자유통합당·비례),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 후보 등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원 후보를 비롯해 부 후보와 정 후보는 모두 제주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출향했다. 김미애 의원은 부모님이 우도 출신이고, 한준호 국회의원은 배우자가 제주출신이다. 김정호 의원은 제주 추자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박용찬 후보는 장인이 부산제주도민회 회장 출신이다. 황보승희 후보와 신장식 후보는 모두 외가가 제주다. 원 후보의 경우 이번에 당선되면 4선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되면 당권이 나 대권 도전의 탄탄대대가 열릴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은 20·21대에 이어 3선에 도전,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약했다. 한준호·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토위 등에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21대에 이어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정치신인인 부승찬·정춘생·박용찬·신장식 의원이 당선되면 다양한 상임위에서 제주 현안 절충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꼼꼼한 투표소 점검 9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림읍제1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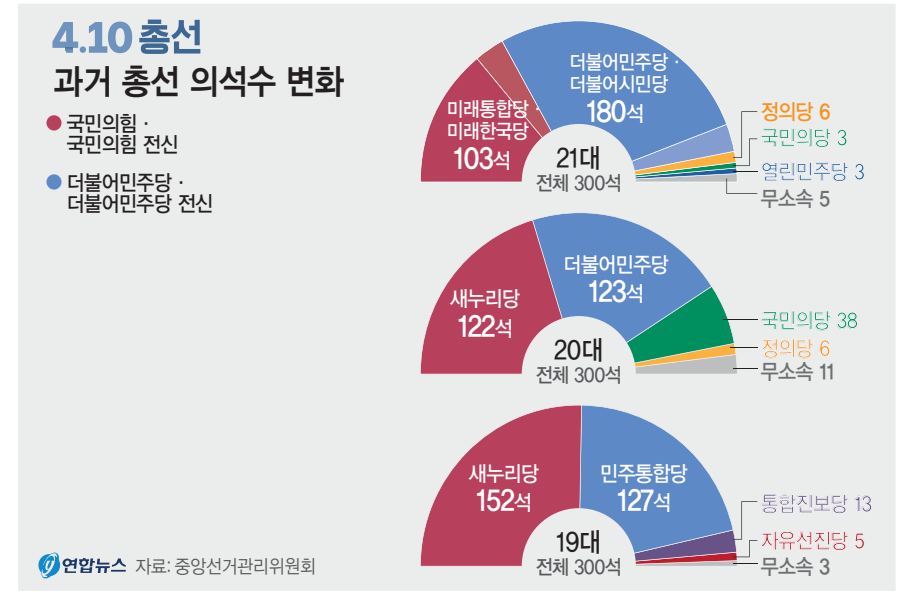
## 높은 사전투표율... 본투표 결과도 촉각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10일 진행되는 본투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은 향후 4년 간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과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부의 국정을 견제하는 막중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제주를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

미터가 되어 왔다. 전체 300석 의석 가운데 제주는 3석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는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많다.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총선 사전투표에서 제주도 유권자 56만6611명 중 16만14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은 28.5%로 집계됐다. 4년 전 총선에서 제주 사전투표

율은 24.64%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갑과 제주시를 선거구가 있는 제주시의 경우 41만290명 중 11만2015명이 투표해 27.3%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15만6321명 중 4만9478명이 투표해 31.65%로 3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세 현장에서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딱 한 표가 모자라"며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200석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막판 유세에 나서며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기억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74호

### 2024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 다기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 건령: 10년 이내 (사용승인일 '14.04.01.~' 공고일 전일)
- 동별 일일 매입이 가능한 주택
- 동일 동내 호별 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가능하며 접수 시 1건으로 처리
- 공사에서 기 매입한 주택의 동별 잔여주택은 건령 15년 이내, 1호 이상 신청 가능

■ 유형별 면적기준

일련번호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이상
다지녀형	전용면적 40㎡이상 85㎡ 이하, 방 두개이상

■ 매입호수: 90호 (일반 45호, 다지녀 45호)

■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로 매매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

유형	매입단가	비고
일반형	165백만원/호	*각종 부대비(감정평가, 법무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임
다지녀형	245백만원/호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04.08.(월)~2024.04.19.(금) [평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 동기우편접수는 2024.04.19.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방문접수는 담당자(주거복지팀 ☎ 064-780-3595, 3808)와 사전통화 후 방문
- 접수처: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 신청서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www.jpdc.co.kr - 정보공개 - 공지사항)

■ 매매절차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시찰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매입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주택 선정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 매입조건 및 계약관련사항 등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牙山朴氏 濟州道宗親會

#### 墓祭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案内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종친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入道先墓 墓祭奉行 및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宗親님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先祖의 隱德을 기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4년 4월 14일(일) 오전 10시  
장소 99골 入道先墓

■ 연락처

응담종친회장 박홍식 010-3690-3706  
연동종친회장 박수택 010-2691-5208  
외도종친회장 박규태 010-3380-8385  
사무국장 박복만 010-6787-6335  
종친회장 박규태 010-3380-8385

牙山朴氏 濟州道宗親會  
會長 박규태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